

# 시대의 아픔 넘어...기억과 치유 통해 문화·인권 마을 탈바꿈

**5·18 40주년 주남마을의 기억과 치유**

〈하〉 트라우마 극복 노력들

무등산 자락의 한적한 '주남마을' 곳곳에는 주민들 스스로 세운 40개의 '솨대'를 발견할 수 있다. '솨대'는 과거로부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소통자의 역할을 하며, 인간의 소망을 하늘에 전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남마을의 솨대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40년 전 민간인 집단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40년간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주민들의 몸부림이다. 주남마을 주민들도 5·18 이후 30년 동안은 실의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2010년 마을 안 골짜기에 희생자 위령비를 세우면서부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은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마을모습에서 40년 전의 고통보다는 주남마을의 아름다운 미래를

민중·인권·평화 3가지 길 조성 마을 곳곳엔 평화 기원 솨대 주남마을 5·18이야기 책 제작 28일엔 '기억이 니은이 축제' 상차 치유하고 대동정신 승화

생각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인 미니버스 총격사건의 부상자를 사살해 암매장한 장소에는 위령비가 세워졌다. 마을 입구에서 위령비까지 이르는 길은 민주·인권·평화라는 3가지 폭지로 길을 조성했다. 해당 폭지의 길에는 3명의 시인(문병란·잔원범·손광은)들이 직접 걸어보고 느낀 점을 시로 표현한 비석이 세워졌다. 2013년부터는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계, 주민들 스스로 '문화와 인권의 마을'로 탈바꿈해 40년 전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다. 마을을 꾸미며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에 후손에게 아름다운 마을을 이어주기 위한 노력에 온 정성을 쏟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남마을 경로당을 정비하고 2층에 역사박물관을 조성, 마을 주민

들이 모여 인권교육을 받고 치유의 장으로 이용했다. 1980년 5월 주남마을에 계엄군이 버리고 간 진압봉과 탄약통도 이곳에 전시했다. 주민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치유하는 작업들도 진행됐다. 40년 전 계엄군이 마을에 주둔해 주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공포와 아픔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 간 소통을 늘렸다. 또 주민들이 각 집마다 새로운 기쁜 소식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체통에 직접 그린 그림을 붙이는 등 40년 전 끔찍한 기억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1980년 직접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록한 책인 '주남마을이 들려주는 5·18이야기'도 만들었다. 이 책은 주민 31명의 사진과 함께 직접 겪은 이야기와 마을의 역사 등으로 구성됐다. 치유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주남마을의 삶과 문화, 역사, 이야기 등을 엮어 스토리텔링 북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과거 주남마을의 명칭)' 이야기'도 제작했다. 또 전국에서 518개의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 마을 주민들 스스로 이 마을에서 아픔을 견디고 살아온 자부심도 높였다. 마을에서는 2014년부터 매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축제의 방식으로 승화하는 '기억이 니은이 축제'(기억하라! 녹두밭



지난해 5월14일 광주시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위령비에서 열린 제6회 '기억이 니은이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기억이 니은이 축제는 5·18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주남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마을축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웃머리의 초성을 상징)를 개최하고 있다. 5·18 의미를 담아 주민 스스로 모은 기부금과 시보조금으로 행사를 준비한다. 김재범 주남마을 통장은 "40년의 아픔을 어른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고,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면서 "앞으로 위령비까지 가는 길이 정비돼 주남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회째를 맞는 '기억이 니은이 축제'는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5·18 40주년 주요 사적지 15~24일 개방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됐던 5·18 주요 사적지도 40주년을 맞아 개방된다. 14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옛 505보안부대, 국군광주병원, 광주교도소, 광주적십자병원, 주남마을 인근 시민학살지 등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개방, 시민들이 둘러볼 수 있게 됐다. 505보안부대는 1980년 5월의 처음과 끝, 기획·관리·통괄한 기관으로, 당시 학생회 간부와 재야인사 등을 추적해 감압적이고 고문을 병행한 조사를 통해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했다. 광주교도소 터는 오랫동안 암매장지로의 심을 받아왔다. 3공수여단은 1980년 당시, 이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상무총정작전'을 위해 광주공항으로 이동했다. 3공수여단이 주둔하던 시기 이 일대에서 민간인 희생이 주로 일어나, 교도소 일대는 지난 2017년부터 암매장 시신 발굴한 작업이 이뤄졌지만 성과는 없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한 환자들을 치료



했던 곳으로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다. 당시 병원 앞에는 부상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헌혈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남마을은 40년 전 민간인 집단학살이 이뤄졌던 아픔의 공간이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이들 사적지를 개방하는 한편, 안내부스와 해설사도 배치해 참가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 해설은 평일엔 오후 1시~6시, 주말은 오전10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 내 매 시간 정각에 시작한다. 같은 기간 5·18구묘지,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에도 안내해설사가 배치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카카오택시 광주 진입 일단 허용

### 법원 "광주택시조합의 가맹사업 참여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의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의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 결정으로 분안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민들은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 25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최근 광주에서도 가맹택시 사업인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심재현)는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총회결의의 효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면서 "총회결의가 가맹사업에 참여한 택시회사들을 제재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재 정도가 필요성에 비해 택시회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회사들이 총회 결의에 따라 제명되면 전국택시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일반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한 지자체 지원도 어려워지는 등 손해가 예상되므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의 '카카오T블루' 서비스 등 가맹점 가입 금지 결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택시조합측이 대부분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가입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단체인데다,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

면 택시운송사업 경영이 어렵게 되는 점과 독자적 경영 판단에 따라 택시회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 총회 결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처분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광주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4월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카카오T 블루를 포함해 가맹사업에 조합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은 제명하는 안을 신설해 결의했다. 카카오T 블루 서비스 가맹계약을 체결한 19개 택시회사들은 해당 결의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 명진고 교사 해임에 학생들이 반발

### 학교측에 "부당 해임 철회하라"

광주 명진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교사의 해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일보 2020년 5월12일자 7면 보도>

이들은 14일 명진고 교문 앞에 '명진고 학생 일동'으로 "저희는 정의로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해임처분 철회하고 해당 선생님께 사과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익명의 학생은 또 광주시교육청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A교사 부당 해임 정계와 관련해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의 사과와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 도연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년)스쿨미투로 직위 해제 됐던 교사들의 징계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한 재심의를 해 주라고 요구하고 해당 교사들이 3학년 학생들

졸업 전에 명진고 교사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지난 8일자로 해임했다. 도연학원 관계자는 "A교사는 최근 배임증제 미수 혐의로 고발됐다"며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교사로서 인성과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 의료시설**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 7,913,565,060원 최저가 : 4,431,597,000원(56%)
- 다 세 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무등산이스트리  
전용 : 176.4㎡(53.4평) 대지권 : 313.59㎡  
감정가 : 559,000,000원 최저가 : 391,300,000원(70%)
- 다 세 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트라운하임  
전용 : 243.2㎡(73.6평) 대지권 : 622.57㎡(188.3평)  
감정가 : 960,000,000원 최저가 : 672,000,000원(70%)
- 아 파 트** ▶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전용 : 125.95(38.1평) 대지권 : 71.37㎡(21.6평)  
감정가 : 381,000,000원 최저가 : 266,700,000원(70%)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